

“아름다운 팜스테이 만들어 나갈 것”

한국팜스테이 중앙회장에 순창 고추장익은마을 최광식 대표 당선 확정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29일 농협수안보수련원 2019년 한국팜스테이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순창 고추장익은마을 최광식 대표가 제 8대 전국 회장에 당선됐다. 31일 밝혔다.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광식 대



표는 2002년부터 순창 고추장익은마을 대표로 활동하며 순창 구립농협 조합장, 한국팜스테이중앙회 전북도협의회장, 현재 사)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도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운영하는 순창 고추장익은마을은 전국 최초 고추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농협에서 육성하는 팜스테이 마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발효식품

종합휴양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농협에서 육성하는 농촌체험 브랜드 팜스테이(Farm Stay)는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생활·문화체험과 주변관광지 관광, 마을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체험 여행 프로그램으로 1999년 32개 마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30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최광식 회장은 “전국 농촌관광을 선도해 온 팜스테이마을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돼 영광이다”며,

“도농협동운동과 연계한 농촌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팜스테이 마을간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간 인력지원, 체험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회원마을의 공동 발전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팜스테이 마을이 지난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문화·체험·관광서비스를 연계해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농의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설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아동수당 수령계좌,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여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아동수당 수령계좌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북농협, '아동수당 수령계좌' 대고객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설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아동수당 수령계좌,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여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아동수당 수령계좌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에 농협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2회 이상 수령한 고객 중 총 300명을 추첨해 황금돼지 팔도 바 3.75g(5명), 롯데월드타워 입장권 4매(45명), 영화티켓 2매(100명), 울리·원이 캐릭터인형(150명)을 경품

으로 제공한다. 또한, 3월 31일까지 NH착한어린이 적금'에 신규가입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적금 1만원을 적립해주며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본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친구를 소환하는 SNS참여고객에게는 총 200명에게 포레오래치킨상품권과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각 100매를 추첨하여 증정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농협이 지난 30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유재도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대의원, 임직원 등 내외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7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도 실익증진과 영농지원에 최선을”

전주농협, 결산 정기총회 개최

전주농협은 지난 30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유재도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대의원, 임직원 등 내외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7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2018년도 당기 순이익 42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3억원 등, 총 55억원의 잉여금 처분(안)을 상정, 법정적립금 적립 6억원, 사업준비금 적립 11억원, 출자배당금 21억

원, 이용고배당금 6억원, 차기이월금 11억원 등으로 하는, 2018년도 제47기 결산보고서 승인 및 잉여금 처분안을 각각 승인했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금융환경,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속에도 960억원의 경제사업 실적(구매사업 84억원, 판매사업 670억원, 마트사업 180억원 등)과 예수금 1조 3,200억원, 대출금 1조 2,000억원 등 상호금융사업 2조 5,200억원을 달성하는 기쁨을 토했다.

이러한 사업실적은 전북권에서는 압도적 수위를 점하고 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2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사업량이다. 전주농협은 조합원 실익지원과 영농비 지원에 역점을 두어, 영농자재교환권(구 농사연금) 30억원 지원과, 조합원저너 장학금 지원, 농약 및 비료 지원, 유기질퇴비 보조, 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총 74억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원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농민조합원님들을 위한 실익증진과 영농지원 사업을 위해, 74억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

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전주농협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이다”며, “열악한 농사현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농사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농민조합원님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이러한 애국자를 위한 농협, 농민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농협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임직원,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와 협의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3억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 정책에 발맞춰 오는 31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기존 5%

에서 10%로 상향 적용하여 전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등 온누리 상품권 판매와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방극봉 인사지원부장은 “전북은행은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은행으로 임직원들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가 지역경

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모든 행복하고 따뜻한 설을 맞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31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보기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고자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여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경영진은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서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회장 하현수)를 찾아 전통시

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침체와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고재찬 사장은 “시장 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올해로 7년째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 나눔경영 활동을 하고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어촌공사, 어려운 이웃 돕기에 솔선수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민)는 2019년 설 명절을 맞아 지난 30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안면 소재 무지개가족과 노인복지관인 삼천동 소재 전주신성양로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본부에 근무하는 30여명의 직원들은 중증장애인 재활치료시설과 노인복지관을 방문, 기부금(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실내청소, 환경정리를

통해 시설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 없는 환경을 조성해줬다. 박종민 본부장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